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어르신 버스비 지원 교통복지 제안



▲이희승 의원
(잠실본동·잠실
2·7동)은 고령
화 시대에 발맞
춰 어르신들의
실질적인 이동
권을 보장하는
'생활교통복지'
의 단계적 도입

을 집행부에 제안했다.

이 의원은 "송파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2만 명 넘게 계시지만, 일상적인 생활 이동은 지하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"며 "실제로 고령층일수록 버스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, 버스 교통비 지원이 절실하다"고 지적했다.

이 의원은 종로·중·강남·서초구 등 서울 타 자치구의 어르신 버스비 지원 정책 및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

조례 가결 사례를 언급하며, 송파구 역시 일상적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교통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이어 구가 우선 65세~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제 시행한 뒤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'단계적 보편화' 방안을 제시했다.

이를 위해 이 의원은 송파구에 △어르신 이동 실태 조사 △연령별 대상에 따른 소요 예산 비교 분석 △서울시 사업 연계 시범사업 설계 및 개인정보·정산 방식 검토 △성과 평가 지표 마련 및 관련 조례 제·개정 검토 등 4가지 과제를 촉구했다.

이 의원은 "이동은 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"이라며 "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생활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